

이슬람 사상의 몇 가지 기본 특성(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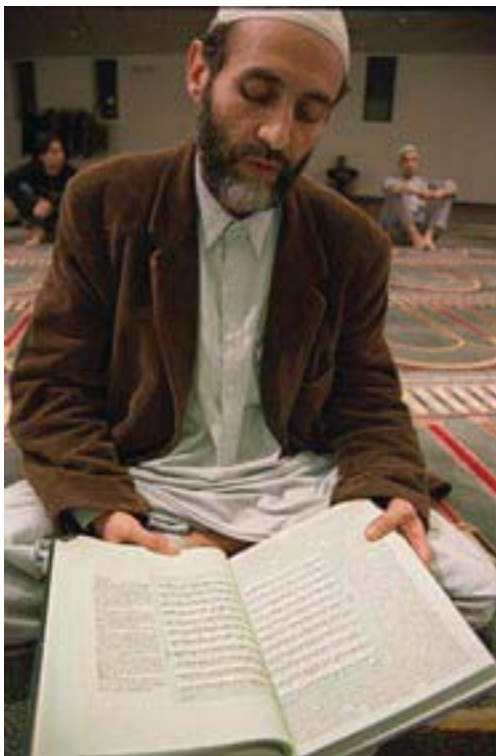
6) 영속성과 변화

영속성과 변화라는 두 요소가 인간사회와 문화 속에 공존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반드시 남아 있다. 상이한 이념과 문화체계 등은 이 두 가지의 평형상태에서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여 왔다. 영속성만 너무 강조함으로써 그 체계를 경직시키고, 융통성과 진보를 빼앗아갔다. 반면에 영원한 가치인 불변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도덕적 상대주의나 무형주의 및 무정부주의가 생겨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둘 간의 균형, 즉 영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이다. 까르도소(Cardozo)라는 한 미국 판사는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진보라는 두 갈등의 요구를 조정하고 성장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는 철학이다.” 이슬람은 안정의 요구뿐 아니라 도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삶에는 영속성과 변화의 두 요소가 필요하다. 너무 완고하거나 융통성이 없어서 심지어 하찮은 문제에서조차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도 안 되고, 또한 너무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여 영속성이 결여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인체의 생

리적 변화 과정을 볼 때 분명해진다. 인체의 모든 세포조직은 한평생 사는 동안 수시로 변하지만, 인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나뭇잎, 꽃, 열매 등은 변하지만 나무의 특성은 변함없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영속성과 변화의 두 요소가 조화로운 평형상태를 이루면서 공존해야함이 생명의 법칙이다. 그러한 생명체계만이 이상의 두 요소를 마련할 수 있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생활의 근본문제는 어느 시대

나 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과 수단, 그리고 바뀌는 현상을 다룰 기술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같이 변한다. 이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망으로 초점을 맞추고 실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꾸란과 순나에는 우주의 주님께서 내려보내신 영원한 인도가 들어 있다. 이 인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며, 계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그 분께서 계시하신 개인과 사회의 행동원칙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영원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범위한 원칙만 계시하시고, 인간이 이를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정신과 상

황에 적합한 방법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셨다. 각 시대의 사람들이 당시의 문제에 신의 인도를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로 이즈따하드(Ijtihad)를 통해서이다. 그러므

로 기본적인 인도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적용방법은 각 시대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 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슬람이 아침 햇살처럼 언제나 새로우며, 현대적으로 남아 있다.

7) 완벽하게 기록 보존된 가르침

이슬람의 가르침은 그 본래 형태대로 보존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인도는 아무런 변질없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밝히고자 한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경전으로서 140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형태 그대로 남아 있다. 이슬람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또한 그 본래의 순수함 그대로 남아 있다. 이처럼 독특하게도 역사적 기록에 있어 한 점의 변질도 발견할 수 없다. 사도 생애의 모든 기록과 말씀은 전례없는 정확성과 근거에 입각하여 하디스(Hadith)나 시라(Sirah : 사도 무함마드의 전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내려 왔다. 심지어 상당수의 비무슬림 비평가들도 이 감동적인 사실을 인정한다. 레이놀드 니콜슨 교수는 '아랍 문학사' 라는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꾸란은 놀랄 만한 인간의 문서로서 무함마드와 그의 외적 생애와의 관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슬람의 기원과 초기 발전과정을 알아내는 데 독특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근거자료로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 불교나 기독교 혹은 기타 고대 종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상이 이슬람의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며, 인간의 종교—오늘과 내일의 종교—로서 그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측면에 매료되어 과거와 오늘날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슬람이 진리의 종교요 인류를 위한 올바른 길임을 확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속하여 다음을 말할 것이다.

“알라 외에 다른 것은 숭배받을 가치가 없고 그분은 한 분으로 어느 누구도 그분의 권위를 함께 나눌 수 없음을 내가 선언하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내가 선언합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경전으로서 140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형태 그대로 남아 있다. 이슬람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상세한 이야기들 또한 그 본래의 순수함 그대로 남아 있다. 이처럼 독특하게도 역사적 기록에 있어 한 점의 변질도 발견할 수 없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창문 : 눈



우리의 신체의 각 기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 단 하나 만이라도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고말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눈이 없어진다면... 당신에게 눈이 없다면 무엇을 하였겠는가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잡지를 읽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속에 있는 다채로운 그림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토끼나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TV의 만화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색깔도 모습도 볼 수 없을 것이며, 빛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며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알라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눈을 주시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알라께서 인간들에게 이 아주 중요한 자산을 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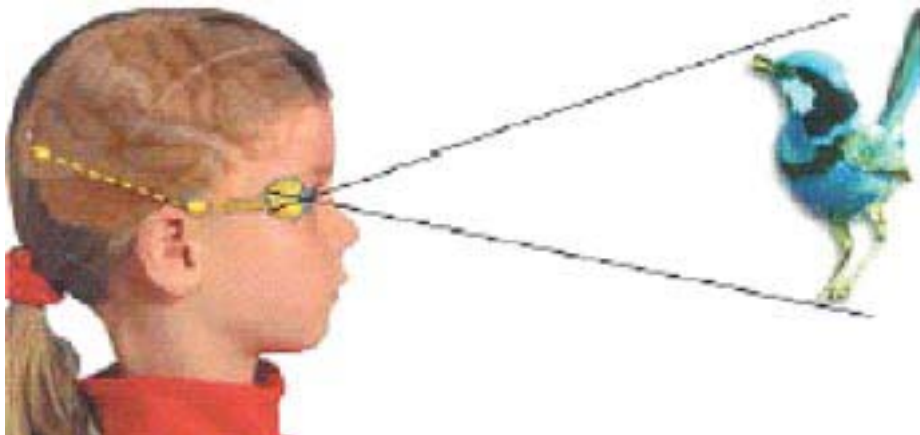
우리의 눈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눈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수행하여 그 후에 비로서 우리는 주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간략하게 검토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주변에 빛을 반사하고 방출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 잡지를 보고 있는 동안, 이 잡지에서 반사되고 방출된 빛이 당신의 눈동자를 통하여 눈의 뒤 쪽으로 갑니다. 이 빛은 눈의 뒤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이 전기 신호가 뇌로 갑니다. 뇌의 뒤쪽에 시력의 중심이 있어 당신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력의 중심은 작은 공간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전기 신호들이 잡지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보게 되는 이 잡지입니다.

가능한 간결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들 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반면에 그 과정은 순간적입니다. 이 과정들은 당신이 이 잡지를 볼 때 그 즉시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빨리 발생합니다.



“폭풍이 불어와서 얼마간의 전기 케이블, 나사, 망치, 드라이버들이 집밖으로 날라가 모두 뒷뜰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고 천둥이 쳐서 이것들은 흙과 함께 영키게 되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TV 수상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이 미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TV란 수백명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전문 요원들이 있는 거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V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TV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우리의 눈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TV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과 꼭 같이 우리의 눈 또한 우연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알려게서 우리의 눈을 삼차원으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천역색 영상으로 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에 대해 알라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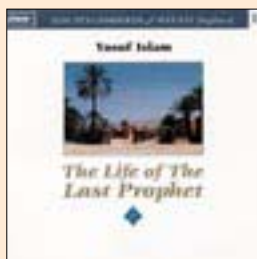
이번 달의 질문

질문: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께서 꾸란을 쓰셨습니까?

대답: 이 오해를 부식시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종교의 성서에서도 성꾸란에서 만큼 분명히 나타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만일 그것이 인간에 의해 쓰여진 것이었다면, 그 속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을 것이다.”라고 꾸란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꾸란이 계시되던 당시에, 아랍인들은 꾸란의 언어는 독특한 것으로 그것은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아랍인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시로 유명해졌고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는 문맹자이었다!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꾸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에게 항의하고 그를 거역했을 것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에게는 수천명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는 단지 일세기를 넘기는 동안 스페인에서 중국까지 이슬람을 전파했던 것이다. 비록 꾸란이 시는 아니지만 꾸란이 계시된 이후로 아랍인들이 어느 정도 시를 쓰는 일을 포기해 버렸음을 주목해 보는 것도 또한 흥미로운 일이다. 꾸란은 아랍의 문학 작품 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꾸란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가 꾸란 속에 상세히 설명되는 역사적 사건들, 이전의 사도들, 그리고 자연 현상과 같은 상당

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다. 꾸란은 몇몇의 장소에서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들)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거니와,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틀림없이 배척했을 것이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즉, 꾸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잘 보존된 성서일 뿐만 아니라, 그 웅변, 정신적 충격, 메시지의 명료함, 그리고 진리의 순수성에 있어서 비길 바가 없을 것이다.

CD 제작



우리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에서는 유스프 이슬람 (Yusuf Islam)이 녹음한 **『마지막 사도님의 일생』**을 한국어판 C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어쩔 수 없

이 여러분의 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적은 돈이나마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은행, 계좌번호 21 4-0478 41-12-001/예금주: 일관 자필
E-mail: muslimkorea@har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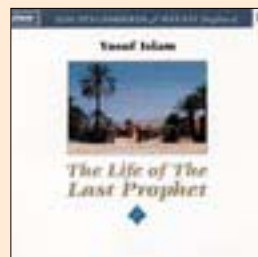
Question of Month

Question: Did Muhammad(PBUH) write the Qur'an?

Answer: In addressing this misconceptio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no other religious scripture claims it to be the direct word of Almighty in toto as clear and as often as the Holy Qur'an. As the Qu'ran clearly says: "if had been written by man, you would have found many discrepancies therein". At the time the Qur'an was revealed, the Arabs recognized that the language of the Qur'an was unique and that it wa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language normally used by the Prophet Muhammad(Peace Be Upon Him). The Arabs of that time, by the way, were known for their beautiful poetry and Muhammad(PBUH) was known to be an illiterate man! The Qur'an clearly says that Muhammad(PBUH) was unable to read and write, so if this wasn't true, certainly his contemporaries would have protested and rejected him. However, there are no reports of this. Certainly there were people who rejected Muhammad's message, just like other prophets were rejected, but none for this reason. On the contrary, Muhammad(PBUH), had thousands of loyal followers and the results of their efforts spread Islam from Spain to China in just over a century!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even though the Qu'ran is not poetry, the Arabs more or less gave up writing poetry after it was revealed. It could be said that the Qur'an is the piece of Arabic literature par excellence - and Muhammad(PBUH)'s contemporaries realized that they couldn't out do it. Additionally, it is easy to prove that Muhammad(PBUH) did not possess a great deal of the knowledge which is expounded in the Qur'an: such as knowledge of historical events, previous prophets and natural phenomenon. The Qur'an says in several places that Muhammad(PBUH) and his people did not know these things - so, again, if this wasn't true, certainly his

contemporaries would have rejected his claims. Suffice it to say that not only is the Qu'ran the most memorized and well preserved scripture on earth, it is also unequalled in eloquence, spiritual impact, clarity of message and the purity of its truth.

CD PROJECT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has decided to make a cd in Korean Language entitled 'Life of the Last Prophet' written by Yusuf Islam. We need

your financial contributi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send mail to muslimkore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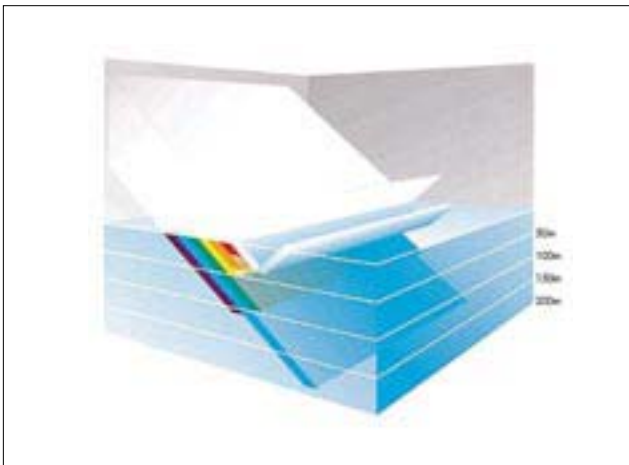
Bank Information: Woori Bank, Account number: 214-047841-12-001, To: Irfan Jamil

깊은 바다와 내부의 파도

알라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불신자들이란 깊은 바다 속의 암흑과도 같으니, 파도가 그 위를 덮고 또 파도가 그 위를 덮으며 그 위에는 구름이 있고 어둠은 아래로 겹쳐있다. 사람이 손을 뻗어도 그것을 볼 수 없다.”(꾸란 24장 40절)

이 절은 깊은 바다에서 발견되는 어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깊은 바다에서는 사람이 손을 뻗으면 손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깊은 바다의 어둠은 약 수심 이백 미터 아래에서 발견된다. 이 깊이에는 거의 빛이 없다. 수심 천 미터 아래에는 빛이 전혀 없다. (Oceans Elder and Pemetta 27 페이지)



사람은 잠수함이나 특수 장비의 도움없이는 사십 미터를 잠수할 수 없다. 사람은 수심 이백 미터 아래와 같은 깊은 바다에서는 보조 장치 등의 도움없이 생존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해준

특수 장비와 잠수함을 이용하여 최근에 이 어둠을 발견해냈다. 우리는 “깊은 바다는 파도로 덮혀져 있고, 그 위에 또 파도가 있고, 그 위에는 구름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깊은 바다의 물은 파도로 덮혀져 있고, 또 그 위에는 또다른 파도들로 덮혀져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파도가 우리가 보는 바다 표면의 파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첫 번째의 파도는 어떠한가?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밀도의 층들 사이에 있는 밀도 점점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파도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해냈다. (Oceanography, Gross, 205 페이지)

내부의 파도들은 깊은 바다물을 덮고 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물은 그 위에 있는 파도들 보다도 밀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내부의 파도들은 표면의 파도들과 같이 작용한다. 즉, 내부의 파도들은 표면의 파도들처럼 부서질 수 있다. 내부의 파도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일정한 장소에서의 온도나 염분 함유도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탐지될 수 있다.



한국의 무슬림

옷

Khadija(정희숙)

옷을 벗을 것인가!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태고이래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나뭇잎을 걸치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몸에 붙어 있어야
편한것이 현실이다.

어린시절 명절이 다가오면
나의 때때옷을 만드느라
며칠밤을 지새우던 어머니.....
푹디고운 옷을 버릴새라
발걸음도 조심하고,
앉을 때도 옷갓을 살포시 잡아 보았는데.....

세월이 흘러
내 어머니는 먼길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옷을 떠나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
무슬림으로서 결혼을 했고,
영원한 옷을 입게 되었다.

처음으로 이슬람교의 “하디스” 책을 접하고
마음에 다가온 귀절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옷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슬람에서 가정을 가진
남편과 아내는 옷에 비유되기도 한다.
“남편은 아내의 옷이요,
아내는 남편의 옷이니라.”

.....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나 나들이를 나설 때
좋거나 아름답거나 실용적인 옷을 입고 싶어한다.
자기 맘에 드는 옷을 입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역시 그렇지않은가?
그렇다면 선택된 배우자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상대의 배우자가 된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배우자의 아름다운 옷이 될것인가!

옷을 벗을 것인가?
실용면에서도 입는 게 편하지 않겠는가?
옷을 입을 것인가?
물론 이슬람에서 독신을 고집하진 않는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기왕이면 다홍치마’ 라고 맘에 들면 더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맘에 안드는 옷이 선택되었다고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내가 아끼고 보호하면,
옷 또한 나를 사랑 할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꾸란” 과 “하디스” 에서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내가 선택 할 수 있었던 이슬람!
그 속에서 맑고 밝은 세상을 본다.
또 하나의 이슬람을 본다.
또 다른 옷을 본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사람을 죽일 때, 종교가 언급되지 않는데,
(When a Christian or Jew kills someone,
Religion is NOT mentioned,)



그러나 무슬림이 범죄 혐의로 고발될 때에, 재판 받는 것은 이슬람인가?
(But when a muslim is charged with a crime,
It is Islam that goes to Trial?)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다.(Palestinian muslims killed by Jews army)

이탈리아에서의 이슬람

이탈리아가 이슬람으로 돌아서다 (C. Pedrick)



21년 전에, Rosario Pasquini는 지독한 골초였고, 그에게 적절한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그가 오늘날 묘사하기로는 악몽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북부의 분주한 도시인 Milan에서 변호사로 성공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이다. 1934년 Flume에서 태어난 Pasquini는 1957년에 밀란 대학교를 졸업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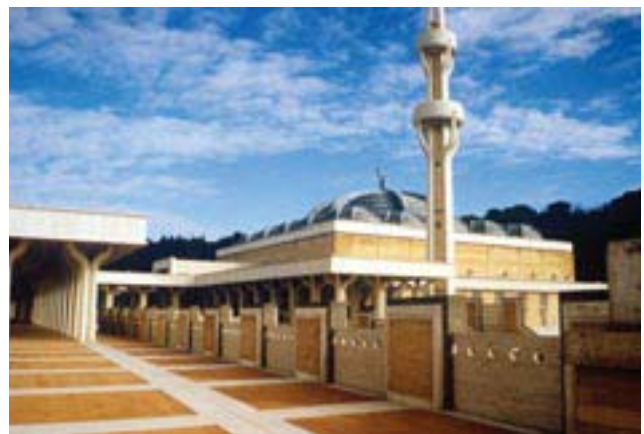
1974년에 무슬림이 되었다. 이제 50대인 그는 자신을 압두라만이라고 부른다. 그는 Il-Misericordioso 모스크(성원)에서 금요 예배를 이끌고 아랍 및 이슬람 문화의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는 L'Islam Credo(이슬람 신앙), Pilastri(5 기둥), Vertice e Pertezione 그리고 Muhammad, L'Inviato di Dio(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무함마드)의 저자이기도 하다.

압두라만은 아직 밀란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변호사 가업을 자기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주는 그 무엇과 바꾸어버렸다. 그는 지금 "Il Messaggero del Islam(이슬람의 사도)"라고 불리는 신문사의 편집장이다. 그 신문은 8페이지의 타블로이드 판인데 자신이 전에 변호사이었던 것처럼 이슬람 신앙으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날로 늘어가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서열이 날로 늘고 있다. 프랑스와 가장 유명한 개종자가 전에 팝가수였

던 Cat Stevens(Yusuf Islam)인 영국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날로 늘어가는 이탈리아인들이 정신적 위안을 위해 이슬람 신앙으로 돌아서고 있다,

"매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슬람과 개종의 절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라고 밀란의 이슬람 센터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압두라만은 말했다. "어제는 한 사람, 오늘은 두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로 각기 다른 계층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모두 각기 다른 개종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이슬람 문화 센터와 모스크

이슬람을 포용하기로 결정한 이탈리아의 기독교인들에는 엔지니아, 예술가, 지식인, 학생 그리고 수녀도 있다. 그들이 무슬림과 결혼했기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수히 지적이거나 종교적 선택의 개종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개종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항시 너무나 많은 소비자 중심주의 와 스트레스와 함께 좌절감이 그리고 대부분

의 서구 사회에서 상실되어 버리고만 정신적 만족에 대한 열망이 깃들어 있었기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무슬림이 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처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에 결심을 굳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상의 문제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로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무서워서 비밀리에 개종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압두라만 자신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이해를 받았다. 그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만큼의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했다. 사실상, 85살의 나의 어머니는 아직 카톨릭 신자이신데 최근에 나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알라를 칭송하는데 그 이유는 만일 내가 개종하기 전처럼 계속해서 살았었다라면 내가 지금쯤은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 당시에 나는 끔찍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리와 같은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있는 경쟁심의 희생물이자 또 그로 인해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오랫동안의 탐구 끝에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남을 판단하거나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슬람에 귀착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나에게서는 그것은 스스로는 자유스럽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요구들의 속박 하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많은 개종자들처럼, 압두라만 또한 전 마음을 다 바쳐 그의 새로운 신앙을 끌어안았다. 그는 꾸란을 읽고 번역된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스크(성원)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랍어를 배웠다. 그의 아랍어 구사 능력은 너무나 능통하게 되어서 지금은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다. 전 변호사였던 그의 무슬림 신앙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며 양보할 줄을 모른다. 그가 발간하는 무슬림 신문은 이탈리아인 개종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관한 충고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그녀 자신의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서 몰고가려는 여성은 반드시 친척을 동반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의 개종에 기여한 요소들 중의 하나는 그 당시 의과대학 학생이었고, 지금은 밀란의 이슬람 센터의 소장인 요르단 태생의 Ali Abu Shwaima와의 만남이었는데 후에 단단한 우정을 쌓게 된다. Shwaima의 아내 또한 이탈리아인이다. Pasquini와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로 결심하고서는 그녀의 이름을 무함마드 사도의 첫 부인의 이름을 다시 Pola

Moretti에서 카디자로 바꾸었다. 오늘, 그녀는 약간의 기쁨을 느끼며 차도르를 착용 한 채로 거리로 나가기로 감행했던 처음의 날을 회상한다. 그 때는 15년전으로 이탈리아인들이 무슬림을 보는 것에 지금 보다 훨씬 덜 익숙해있던 때였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지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저 여자는 누구야, 수녀인가하고 속삭이는 여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 여자는 어떤 종교 소속인가 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더 이상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내가 한 선택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차도르를 착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꾸란의 한 부분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파티마라고 알려지고 있는 Guiuseppina는 중앙 이탈리아의 모데나에 있는 수녀원에서 살며 신학을 공부하던 로마 카톨릭의 수녀이었다. 그녀는 꾸란을 읽기 시작했고, 자신의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자신의 종교와 직업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시작했다. 그녀는 밀란에 있는 이슬람 센터를 방문했고 마침내 상당한 영적 탐구의 끝에 자신의 명세를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오늘날 그녀는 동료 무슬림과 결혼하였다.



다이엘라는 시실리에서 태어났고 9년전에 개종자가 되어, 이집트인과 결혼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신앙의 모든 규칙들에 기꺼이 복종하고 있다. “내가 밖에 나갈 때면 나는 언제나 차도르를 착용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여성은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감추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남편만이 그것을 볼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순전히 온전한 일로 보입니다.” 다른 서구의 여성들이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볼지도 모르는 신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라는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한 평등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르로 알려지길 더 좋아하는 Franco Leccesi는 이슬람이 만들어놓은 정확한 규칙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더 위대하게 훈련을 얻도록 도와주며 그것이 언젠가는 육체적, 정신적 형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7년전 그가 개종하기 전의 옛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의 규율을 부과하고자 애쓰곤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나는 내 자신 속의 극적인 향상을 느끼게 되었다. 만일 당신이 하루에 5번씩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고달픈 일로부터 탈피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해주고 당신이 삶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나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주는 한 가지는 많은 무슬림 국가의 노인들과 서구의 노인들 사이의 극적인 차이점이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무슬림 국가의 노인들은 같은 나이의 서구의 노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훨씬 더 명석하고 정력적이며 상당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그들이 어린 시절에 배우는 삶의 양식에 기인하는 바, 그로 인해 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사회구조를 중독시키는 종류의 것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서구인들은 삶의 정신적 차원을 거의 대부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공허하기만 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처럼, Leccesi는 로마 카톨릭으로 양육되었으나 여러해 동안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거기에 쓰여있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나, 실제의 관행은 이론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성경에서처럼 정의를 베푸는 식의 처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탈리아인 친구와 함께 나폴리의 모스크들을 연달아 방문한 후, Leccesi는 무슬림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가 찾고 있던 “여분의 무엇”을 가져다줄 것임을 확신했다.



이탈리아인 무슬림 여성들

- 주로 이탈리아 북부에 이슬람 예배소가 214군데가 있다(60.7%). 그 예배소들은 대체로 소박하고 위풍당당하지 않은 건축물들이다.

- 이 중 오직 세 곳만이 큰 모스크(성원)이다.

- 1980년에 이탈리아의 최초의 모스크가 Sicily의 Catania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 1988년에 Al Rahaman 모스크가 무슬림 이주자들과 개종자들에 의해 Milan의 Segrate에서 설립되었다.

- 1995년에 유럽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로마의 Monte Antenne에서 설립되었다.

- 이탈리아에서는 무슬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대형 모스크가 바티칸에서 불과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워졌는데 그 광탑은 성베드로 성당의 둥근 천장보다 더 크다.

- 카톨릭이 주를 이루는 바로 이 나라에서는 그 동안 항상 다른 종교들이 존재하여 왔으니, 북부에는 소수의 발도파 신교도들이, 사실리에는 이슬람의 흔적이, 로마 베니스, 그리고 다른 대도시들에서는 적지만 잘 설립된 유대교 이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처음으로 소수 종교가 이탈리아의 미래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되어 있다. 주로 북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 지원을



리야드 이슬람 문화 센터와 모스크

받는 이슬람이 아직 94 퍼센트가 카톨릭인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구가 5천 7백만 명인 이 나라에 오늘날 거의 백만명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있다. 비록 다른 서구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이슬람 인구들 보다 아직 더 적지만 그 수효는 불과 10년만에 두 배로 늘었다.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이탈리아의 백오십만명의 이주자들 중 36.5 퍼센트를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27.4퍼센트만큼 카톨릭을 압도하는 것으로 최대의 종교 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게 신속한 성장을 보이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Piccardo는 말했는데 그는 덧붙여 모스크와 이슬람 문화 센터의 수효가 지난 16년 동안 12개에서 400 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나라로 특별한 유형의 이슬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 주재 이탈리아 대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다

사우디 아라비아 주재 이탈리아 대사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Torquato Cardilli는 자신의 59회 생일인 2001년 11월 25일 자신의 결정을 폭로했다. Cardilli는 나폴리 대학교에서 동양의 문화와 언어를 전공한 졸업생이다. 그는 알바니아



Torquato Cardilli

와 탄자니아에서 대사로 봉직하기도 했다. 그는 두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아랍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그의 개종은 여러해 동안에 걸친 이슬람 연구의 결과이다. 마침내 그는 2001년 11월 16일 성스러운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슬람으로 공식적으로 개종했다. 기자 성명에서 그는 자신의 행복을 말했고 또 자신은 성꾸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으로부터 이슬람의 진실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주재 이탈리아 대사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두 번째이다. 1년전 Mario Scialoja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던졌다. 그는 그 당시 국제연합의 로마축 영구 대표이었다. 그는 나중에 1994년부터 95년까지 사우디 아라비아 주재 이탈리아 대사로 봉직했다.

Italy Turns To Islam

(by C. Pedrick)

Twenty one years ago, Rosario Pasquini (Danilo) was a heavy smoker, drank more whisky than was good for him and led what he now describes as a nightmare existence, tormented by the stress of having to succeed in his job as a lawyer in the busy northern city of Milan. Pasquini, born in Fiume in 1934,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ilan in 1957 and became a Muslim in 1974. Now in his 50s, Pasquini calls himself Abdurrahman. He leads the Friday Prayer at the Mosque of Il Misericordioso and is a teacher of Arabic and Islamic culture. He is also the author of L'Islam Credo (Believing Islam), Pilastrini (Pillars), Vertice e Perfezione and Muhammad, L'Inviato di Dio.



Abdurrahman still lives in Milan, but he has traded his lawyer's briefcase for something that gives him more satisfaction. He is now editor of a newspaper called "Il-Messaggero del Islam", (The Messenger of Islam) an eight

page tabloid written for the growing number of Italians who, like the former lawyer himself, decided to convert to the Muslim faith.

In Italy the ranks of Christians who have converted to Islam are swelling daily. Just as in France and England whose most famous convert is the former pop singer Cat Stevens (Yusuf Islam), a growing number of Italians are turning to the Muslim faith for spiritual solace.

"Every day, people come in wanting to know more about Islam and the conversion process," said Abdurrahman, who edits his newspaper from an office at Milan's Islamic Center. "Yesterday it was one, today there are two. They come from all over, from different classes and backgrounds, and they all have different reasons for doing it."

Italian Christians who have decided to embrace Islam include engineers, artists, intellectuals, students and even a nun. Some have taken the step because they married a Muslim, while for others it is a purely intellectual or religious choice. But whatever the initial reason, converts say their final decision has almost always been accompanied by a feeling of frustration with too much consumerism and stress, and a yearning for a spiritual dimension that has become lost in most of Western society. Some of the people who decide to become Muslims do so because, like me, they are going through a very difficult period in their life," he says. "Others have family problems. There are even some who are high school students and have converted in secret because they are scared to tell their parents."

Abdurrahman himself received support and understanding

from his own family. He says, "They took the view that I was old enough to make my mind up for myself, and let me get on with it. In fact, my mother, who is 85 years old and has remained a Catholic, recently said to me: "I Praise Allah, because if you had continued to live the way you did before you converted, you would be dead by now."

He continues, "At the time I was prey to a terrible mental stress, brought on by the competitiveness that is so prevalent in our type of society. After a long period of searching, I finally arrived at Islam which says that no one except God has the right to judge and dominate other men.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For me it represented a liberation from a society which believes itself to be free, but which instead forces its members to bow under the yoke of many, many different demands."

Like many converts, Abdurrahman embraced his new faith whole heartily. He learnt Arabic so he could read the Quran and participate in mosque life without having to rely on translations. His command of the language has become so good that he now teaches it. The former lawyer's interpretation of the Muslim faith is strict and unyielding. As well as announcements of births, marriages and conversions, his Muslim newspaper carries advice on how Italian converts should behave. For example, he advises that a woman who intends to drive her car beyond the boundaries of her own neighborhood should make sure she is accompanied by a relative.



Rome Islamic Cultural Center and Mosque

One of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his conversion was a meeting that developed into a strong friendship with Jordanian born, Ali Abu Shwaima, then a medical student, now the director of the Milan Islamic Center. Shwaima's wife is also Italian. Like Pasquini, she decided to convert to Islam and changed her name from Paola Moretti to Khadija, after the Prophet Muhammad(PBUH)'s first wife. Today, she recalls with some amusement the first time she ventured out into the streets wearing a veil. That was 15 years ago, when Italians were far less used to seeing Muslims than they are now. "I felt everyone's eyes on me. It was rather embarrassing," she said.

"I could hear the other women in the supermarket whispering things like, "who is she, a nun?" Or 'Maybe she belongs to some sect.' But that kind of attitude no longer bothers me, she said. I'm sure of the choice I made. It certainly wasn't easy at the beginning, when I made my conversion. But wearing the veil is a duty for women. I couldn't accept one part of the Quran and not the other."

Guiuseppina, now known as Fatima, was a Roman Catholic nun, studying theology and living in a convent in Modena in central Italy. She began reading the Quran, and as her interest grew she started having doubts about her own religion and vocation. She took to visiting the Islamic Center in Milan, and finally after a great deal of soul searching, she renounced her vows and converted to Islam. Today, she is married to a fellow Muslim.

Daniela was born in Sicily and became a convert nine years ago, when she married an Egyptian. She willingly obeys all the rules of her new faith. "When I go out, I always wear a scarf over my head and I keep my legs and arms covered," she said. "A woman should keep all parts of feminine beauty covered, because only her husband has the right to see them. It seems perfectly right to me." In spite of her acceptance of what other Western Women might see as limitations, Daniela claims her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is one of absolute equality.

Franco Leccesi, who prefers to be known as Omar, claims the precise rules laid down by Islam help a person gain greater self discipline, which in turn leads to physical and spiritual improvement. Looking back to the old days before he converted seven years ago, he said: "I always used to try to impose my own self discipline, but it never lasted very long." Added the 42 year Neapolitan artist: "but in the past six years I've noticed a dramatic improvement in myself. If you pray five times a day it also forces you to break off from the daily treadmill. It makes you stop and reflect and prevents you from becoming an automation, who lives his life mechanically.



Rome Islamic Cultural Center and Mosque



"One thing that strikes me very deeply is the dramatic difference between old people in many Muslim countries, and those in the West," he added. There, the elderly are often far more lucid and energetic, right up until old age, they often have remarkable physical and mental powers in comparison with people of the same age over here. Its

largely due to the lifestyle they learn from childhood, which enables them to eliminate stress and to do without the kind of things that poison our systems. We westerns have lost so much of the spiritual dimension of our lives. Its as though we've fallen into a deep sleep. We're living in a world that is so empty- it's very frightening to contemplate."

Like most Italians, Leccesi was brought up a Roman Catholic, but for years he felt that something was missing from his life. He says, "When I read the Bible, I totally agreed with everything it said, but I saw that practice was very

different from the theory. People didn't behave in a way that did (the bible) justice", he said. A series of visits to the Naples mosques, together with the Italian friend who had already converted to the Islamic faith, convinced Leccesi that becoming a Muslim would give him what he defines as "the something extra" that he was looking for.



Leading exporter
M. Shariq Saeed

PH no.: 82-2-2631-8557

Fax: 82-2-2631-8281

http://www.shariq.co.kr

e-mail: shariq@shariq.co.kr

이슬람 모스크(성원)



이stanbul에 있는 블루 모스크



우두하는 무슬림 어린이



기도시간을 알리는 무에진

‘Mosque(이슬람 성원)’ 라는 단어는 ‘Masjid’ 에서 온 것으로 ‘알라(하나님) 앞에 절하기’ 라는 뜻이다. 모스크는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하는 장소이다. 기도(예배)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 중의 하나이다.

모스크는 대개 직사각형이다. 당신이 모스크를 방문하면 모스크 바깥의 Qibla 벽에서 Mihrab을 보게 된다. Qibla는 ‘방향’을 의미하며, 모스크의 안 쪽과 바깥쪽 모두에서 볼 수 있는 Mihrab은 무슬림들에게 메카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말해준다. 무슬림들은 항상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는 메카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이며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카아바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모스크들은 대개 Minaret이라고 불리우는 높은 탑을 가지고 있다. 모스크에서는 무에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기도시간을 알리는데, 종을 울리는 대신 Minaret의 꼭대기에서 목소리로 외쳐 기도시간을 알린다.



메카에 있는 카아바의 모습

당신이 모스크를 방문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묘사된 하나 하나를 올바른 사진과 연결시켜 보시오.



①



②



③



④



⑤

가. 'Mihrab' : 모스크의 측면에 있는 반침으로 무슬림들에게 메카의 방향을 말하여줌.

나. 꾸란 또는 코란: 이슬람 성서

다. 초승달과 별들: 이슬람의 상징으로 대개 모스크의 꼭대기에서 발견된다.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국기에 초승달과 별들을 가지고 있다.

라. 'Minaret' : 모스크의 일부분인 높은 탑. 기도 시간을 알리는 무에진이라는 사람이 탑 꼭대기에서 외친다.

마.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에는 대개 예배 방석 위에 무릎을 꿇는다. 대개 예배 방석의 짜임새에는 작은 홈이 있는데, 이는 알라(하나님)만이 완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 ㉢ ㉣ ㉤ ㉥ ㉦ ㉧ ㉨ ㉩ : ㉪

월간 소식(Monthly News)

★서울중앙성원

서울중앙성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아랍어, 목요일 하디쓰, 금요일 이슬람교리 및 배경, 토요일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서울 중앙성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전화: (02) 794-7307, 793-6908

Seoul Central Masjid

Seoul Central Masjid established Quran, Hadis, Islamic and Arabic classes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s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Seoul Central Masjid.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Arabic
Lecturer: Abdulrahman Lee

Date: Every Thur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Hadith

Date: Every Fri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Miss. Hiba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Quran
Lecturer: Ali

Address: Seoul Central Masjid
732-21, Hannam-dong, Yongsin-ku, Seoul,

★전주성원

전주성원에서는 매일 아스르 예배 후에 이슬람교리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전주성원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전화: (063) 243-1483 / 561-832

Jeonju Masjid

Jeonju Masjid established Islamic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Jeonju Masjid.

Date: Every after asr praying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Abdulwahab Zaid

Address: 1567-10, 2-ga Inhu-dong,
Dukjin Gu, Chonju,

★파주성원

파주성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이사 예배후에는 꾸란

의 해석,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파주성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413-813)
전화: (031) 946-2110
Fax: (031) 946 2126
E-mail: pajumasjid@yahoo.com

Paju Masjid

Paju Masjid established Quran tafsir Quran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Paju Masjid.

Date: Every Saturday after 1pm
Topic of Lecture: Quran Tafsir
Date: Every Sunday (11:00 am)
Topic of Lecture: Teaching Quran

★부산성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 (609-811)
전화: (051) 518-9991
(051) 518-9992
부산성원에서는 매일 아래와 같은 정기강좌 및 모임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 매주 토요일 오후 5:00-6:30
- 일반인 대상 아랍어 및 이슬람교리 강좌
- * 매주 일요일 오전 10:30-12:00
- 외국무슬림 대상 한글교실 운영
- * 매주 일요일 오후 3:00-5:00
-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 * 매주 월요일 오후 6:30-8:00
- 일반인 대상 터키어 및 이슬람교리 강좌
- * 매주 일요일 주흐르 예배후
- 재부 인도네시아 무슬림 회 우스라미팅
- 재부 방글라데시 무슬림 회 우스라미팅
- * 매월 마지막 토요일
- 무슬림가족 등산모임

*Date: Every Saturday, 17:00~18:30
Topic of Lecture: Arabic and Basic Islamic Studies
*Date: Every Sunday, 10:30-12:00
Topic of Lecture: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foreign muslims
*Date: Every Sunday, 15:00-17:00
Topic of Lecture: English teaching for children
*Date: Every Sunday after Zuhur Prayer
Meeting of Indonesian muslims
Meeting of Bangladesh muslims
*Every last Saturday of month family climbing
Address: Busan Masjid
30-1 Namsandong, Kemjeong-ku, Busan

★광주성원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464-807)
전화: (031) 761-3424
광주성원에서는 금요일 합동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Address: Kwangju Masjid
48-9 Yeokri Kongju-youb
Kwangju-gun Kyung-do
Jummah Khutba start at 13:00

★ 안양성원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18-132 (430-828)
전화: (031) 444-7757

Daily Program
-After Asr prayer Hadis lecture
-After Facr Prayer Teaching Quran

Weekly Program
-Every Saturday night at 10:15~11:00 pm, speech about Islamic life
-Every Sunday after facr prayer teaching how to pray, udu, azan etc.

Monthly Program
-Every month last saturday night,
-at 9:00~9:30 pm, question-answer meeting
-at 10:15~11:15 pm, teaching Quran
-at 11:15~11:35 pm, teaching about Islamic life
-Kiamul Lail(Salatul Tahazzut)
-Discussion about almighty Allah
-After Facr prayer teaching Quran
-After Zohr prayer hadis studies
-After Asr prayer discussion about Islam

Address: Anyang Masjid
618-132, Anyang-5-dong,
Anyang, Kyunggi-do

★제주임시성원(Jeju Masjid)

제주시 노형동 939 정한오 피스텔 1215호
전화: (064) 712 1215 / 690-802

★자미아 마스지드 우스만

이슬람 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2-6번지
전화: (053) 523-2171
JAMIA MASJID USMAN
ISLAMIC CENTER TAEGU
#202-6, Chuk Chan-dong, Dal Seo-gu, Daegu,
Korea.
Tel: (053) 523-2171

contents

이슬람 사상의 몇 가지 기본 특성(M)	2	한국의 무슬림	10
이슬람을 배웁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1
‘세상에서의 우리의 창문 : 눈’	4	이탈리아에서의 이슬람	12
이번 달의 질문	7	Italy Turns To Islam	16
Question of Month	8	이슬람 용어를 배웁시다	19
꾸란과 과학 ‘깊은 바다와 내부의 파도’	9	월간 소식(Monthly News)	21

● 2003년 6월 예배시간표 (Timetable for Prayers June 2003)

Date	Day	Fajr	Sunrise	Zohr	Asr	Magrib	Isha
1	Su	3:23	5:13	12:30	16:22	19:47	21:30
2	M	3:22	5:13	12:30	16:23	19:47	21:30
3	Tu	3:21	5:12	12:30	16:23	19:48	21:31
4	W	3:21	5:12	12:30	16:23	19:48	21:32
5	Th	3:20	5:11	12:30	16:23	19:49	21:33
6	F	3:20	5:12	12:31	16:24	19:50	21:34
7	Sa	3:19	5:11	12:31	16:24	19:51	21:35
8	Su	3:19	5:11	12:31	16:24	19:51	21:36
9	M	3:18	5:10	12:31	16:24	19:52	21:36
10	Tu	3:17	5:10	12:31	16:24	19:52	21:37
11	W	3:17	5:10	12:31	16:24	19:52	21:37
12	Th	3:17	5:11	12:32	16:25	19:53	21:39
13	F	3:17	5:10	12:32	16:25	19:54	21:39
14	Sa	3:17	5:10	12:32	16:25	19:54	21:40
15	Su	3:16	5:10	12:32	16:25	19:54	21:40
16	M	3:17	5:11	12:33	16:26	19:55	21:41
17	Tu	3:17	5:10	12:33	16:26	19:56	21:41
18	W	3:17	5:10	12:33	16:26	19:56	21:42
19	Th	3:16	5:10	12:33	16:26	19:56	21:42
20	F	3:16	5:10	12:33	16:26	19:56	21:42
21	Sa	3:17	5:11	12:34	16:27	19:57	21:43
22	Su	3:17	5:11	12:34	16:27	19:57	21:43
23	M	3:17	5:11	12:34	16:27	19:57	21:43
24	Tu	3:17	5:11	12:34	16:27	19:57	21:43
25	W	3:16	5:12	12:35	16:28	19:58	21:44
26	Th	3:16	5:12	12:35	16:28	19:58	21:44
27	F	3:16	5:12	12:35	16:28	19:58	21:44
28	Sa	3:19	5:12	12:35	16:28	19:58	21:43
29	Su	3:19	5:13	12:35	16:28	19:57	21:43
30	M	3:20	5:14	12:36	16:29	19:58	21:44

[알림]

이 잡지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거나 또는 이 잡지의 발전을 위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mail: muslimkorea@hanmail.net

아름다운 이슬람

무슬림 월보(MUSLIM MONTHLY MAGAZINE)
NO. 5 히즈라 리비알 사니 1424 · 서기. 2003. 6. 1
발행처: 한국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한국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110-64 서울광화문 유채국 사사빌 147번
Homepage: <http://www.muslimkorea.net> E-mail: muslimkorea@hanmail.net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K.P.O. BOX 1476 SEOUL, SOUTH KOREA

● 이 예배시간표는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안양, 수원, 인천, 의정부, 광주 등 경기도 지방과 전라북도의 전주 등에서 허용되며 부산시는 이 시간표보다 5분이나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2분정도 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가까운 성원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This time table for Gyeonggi-do Province like Seoul, Incheon, Anyang, Uijeongbu, Gwangju and als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and Jeollanam-do Provinces are same. But Busan city is 5 minutes before this time and Jeju Island is about 2 minutes after this times. For further more information, call nearest mosque.

- The direction of Qiblah in Korea approximately 260° Latitude West.
- Adhan on Jumaah will be called at 13.00 o'clock.



●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편비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발행처: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